

김일엽(金一葉)과 홍일(弘一)의 불교문화 영향력 비교 연구*

한운진(경완)**

• 목 차 •

- I. 머리말
- II. 출가 전후 문화예술 성취와 불교 귀의
 - 1. 출가 이전 배경과 문화적 성취
 - 2. 자각과 역설의 불교 귀의
- III. 불교 문화인으로서의 발자취
 - 1. 일생을 관통하는 수행과 득도(得道)
 - 2. 불교문화에 관한 공헌과 그 영향
- IV. 맺음말

* 본 연구는 2020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아울러 2020년 9월 동국대학교 동아시아 해양문명 & 종교문화연구소 학술세미나
에서 발표한 내용을 갈무리한 논문임을 밝혀둔다.

** 조계종 교육아사리, 고려대학교·한남대학교 강사.

© 『大覺思想』 제34집 (2020년 12월), pp.99-121.

한글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비구니 김일엽과 중국의 비구 홍일을 불교문화와 관련하여 비교하는 논문이다. 김일엽과 홍일은 출가 전 예술 등 문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불교에 귀의한 후 철저한 수행으로 일생을 마감한다. 두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시대, 국가, 젠더가 연대하는 문화적 영향력에 관해 논술한다. 김일엽과 홍일을 비교한 연구는 본 논문이 최초이다.

연구의 방법은 배경 행적과 사상, 영향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는 방식이다. 크게 두 부분으로 먼저 배경과 불교 인식 과정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불교 수행과 문화 영향력을 살펴본다.

배경은 젠더, 지역의 차이로 구별할 수 있다. 김일엽과 홍일은 배경 기반은 다르나 투철한 불교 인식은 동일하다. 무상에 관한 자각과 불교 귀의로 일관되며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후 출가하는 과정은 선지식을 통한 역설적인 인식, 혹은 자연스러운 순리로 외연은 다르지만 내포한 정신은 같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고찰할 것은 불교 수행과 문화 영향력이다. 두 사람의 수행법은 ‘참선’과 ‘계율’로 대표되며 각국 불교 특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을 뿐 철저한 수행이라는 점은 같다. 두 사람의 문화 영향력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반향과 강한 파급력으로 불교 흥법과 지위 제고의 효과를 거둔 것은 같다.

본 연구는 근대 불교의 문화인 김일엽과 홍일의 문화 예술적 업적을 통해 불교문화의 역할을 고찰하는 의의를 지닌다. 두 인물의 문화적 영향력은 현대에도 유효하며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다.

주제어

(김)일엽, 홍일, 참선, 계율, 스토리텔링, 생명, 예술, 창작

I. 머리말

본고는 한국의 비구니 김일엽(金一葉, 1896~1971) 선사와 중국의 비구 홍일대사(弘一大師, 1880~1942)를 불교문화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논문이다.¹⁾ 김일엽은 한국 근대 불교사의 중요 인물로 일가를 이룬 비구니 선지식이다. 당대에는 희유하게 비구니로서 저작물을 남겼으며 이로 인해 문화 예술계에서 흥미로운 논제로 인정되며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²⁾ 비구 홍일은 명실공히 중국 근대 불교 부흥의 주요 인물로 ‘중국 근대 불교 4대 고승’³⁾ 가운데 하나이자 남산 율종의 전승자이다. 출가 전에 이미 예술 분야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선구자로 중국 제반 학계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⁴⁾

본 연구는 김일엽과 홍일의 문화적 영향력에 주목하여 착안한 논문이다.⁵⁾ 영향력 있는 인물의 출가와 수행이 일으키는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불교문화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한다. 논지의 전개를 위해 연대기적 순서를 따르며, 생애의 일대 전환기인 출가를 기준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한다. 먼저 공통

- 1) 이하 출가 전 이름인 김원주, 이숙동은 쓰지 않고 김일엽과 홍일로 통일하며 논문 글의 편의를 위해 존칭을 생략한다.
- 2) 주요 서적으로 Jin Y. Park (박진영), 『Women and Buddhist Philosophy: Engaging Zen Master Kim Iryöp(여성과 불교철학: 김일엽 선사를 통하여)』(Jin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7)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김광식, 「朝鮮佛教女子青年會의 창립과 변천」, 『한국근현대사 연구』 7, 1997; 방민호, 「김일엽 문학의 사상적 변모 과정과 불교 선택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20, 2006, pp.357-358; 경완, 「일엽선사의 출가와 수행」, 『한국 비구니의 행과 삶』, 예문서원, 2007, pp.233-234 등 다수가 있다.
- 3) 홍일을 비롯 인광(印光), 허운(虛雲), 태허(太虛) 등 4인의 고승.
- 4) 주요 서적으로 국내에서 홍일대사 저·전영숙 역, 『그저 인간이 되고 싶었다』(불광출판사, 2014)가 있다. 본 논문에서 서적 외의 번역문 일부는 전영숙의 원고를 참고하였으며 자세한 서지는 각주에 밝혀두었다. 이 외에 홍일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중국에서만 만 70여 편에 이르며, 최근의 석박사 학위논문이 5편, 연구논문 60편, 기타 서신류 5편이 조사되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본고 외에 선행연구로 홍일대사의 제자인 豐子愷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이은주, 「豐子愷의 藝術研究」(국내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12)와 중국 번역 논문인 ‘이수성(李樹聲) 저·安永吉 역, 「중국 근대미술의 선구자 李叔同」(『美術史論壇』 6, 1998, pp.287-294)의 두 편이 조사되었다.
- 5) 본 논문은 김일엽은 비구니, 홍일은 비구라는 젠더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확고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에서 착안하였다.

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김일엽과 홍일은 동시대를 살아간 인물이다. 둘째, 두 사람 모두 불교 교리를 수행하는 출가 수행자로 일생을 마친다. 셋째, 두 인물의 출가는 역설적으로 여겨지며 당대에 큰 화제를 일으킨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공통점에서 출발하여 출가 후의 수행과 행적 위주로 차이점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젠더, 국적, 시대를 초월한 불교문화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가 전 홍일은 문학, 서예, 음악, 연극, 회화 등 예술 분야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김일엽은 여성 선구자로 문필가로 작품을 남긴다. 두 인물의 출가 후 문화 예술적 행보를 살펴보면, 김일엽은 승려들의 글쓰기가 보편적이지 않던 시대에 당대 한국 비구니로는 최초로 수상록을 발표한다. 김일엽의 수상록은 불교사상의 스토리텔링이며 이를 통해 불교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다.⁶⁾ 홍일은 율종의 비구로서 율학 저술을 정리하고 불교 음악 ‘삼보가’를 작곡하여 불교를 전파하며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친다.⁷⁾ 이와 같은 김일엽의 저작과 홍일의 예술 작품 가운데 문헌 자료가 주요 연구대상이다. 본 고찰을 통해 두 인물의 문화적 영향력과 가치를 재고하고 한중 비교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II. 출가 전후 문화예술 성취와 불교 귀의

김일엽과 홍일은 출생과 성장의 배경, 교육, 출가 전 예술적 성취에서 차이를 보인다. 차이는 다양성을 생산하고 다채로운 문화 창작으로 실현된다. 김일엽과 홍일의 불교문화 성취에 관해 고찰하기 전에 불가피한 선행조건으로 연대기적 생애의 일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방대한 일생 전체를 다룰 수 없으므로 생의 일대 전환기인 불교 입문·출가를 기준으로 출생, 성장과 교육, 출가 인연에 관해 간략하게 고찰한다.

6) 한운진, 「일엽(一葉) 선사의 만공 사상 재해석과 독립운동」, 『대각사상』 29, 대각사상연구원, 2018.

7) 홍일대사 저·전영숙 역, 『그저 인간이 되고 싶었다』, 불광출판사, 2014, p.12.

1. 출가 이전 배경과 문화적 성취

한 사람의 인생은 보편적 생명의 존귀함을 포함하여 하나의 오롯한 독창성을 지닌다. 김일엽과 홍일도 그러하다. 먼저 김일엽과 홍일의 출생, 성장 배경을 기술하고 이어서 괄목할만한 문화 성취를 살펴본다.⁸⁾

김일엽은 목사의 딸로서 신학문 교육을 받았으며, 일본 유학을 다녀와 교육 사회 활동 등 문화인의 행보를 이어간다. 그러나 세간에서 김일엽은 다만 결혼과 이혼, 소문과 같은 가십거리 연애사로 소모된다. 김일엽은 문단과 문화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재능과 역할은 좌시되고 소모적인 가십거리로 접철한다.

홍일은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유학을 시작으로 신학문을 배우며 일본 유학을 다녀온다. 좋은 집안에서 일찍이 시작하여 일본 유학의 과정 중에도 음악, 연극, 서예, 회화, 시문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당대의 명인으로 명성을 날린다. 이러한 차이에는 개인의 재능을 떠나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 차별도 존재한다.

김일엽과 홍일의 출생, 교육, 출가까지의 연대를 요약한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⁹⁾

김일엽과 홍일의 출생·교육·출가 연도 비교				
홍일			김일엽	
연도(나이)	사항		연도(나이)	사항
1880. 9. 20		출생	1896. 4. 28	
1984(5세)	부친 병사	성장과 교육	1909(8세)	모친 병사
1886(6세)	중형에게 계몽 유학 사사 등		1913~1918 (18세~22세)	이화학당 입학 이화전문 졸업
1906(27세)	동경미술학교 유화과(東京美術學 校 油畫科)	일본유학	1920(25세)	동경 영화학교 수료
1917(38세) 1918(39세)	단식과 귀의 출가	귀의 출가	1928(33세) 1933(38세)	발심, 귀의 금강산으로 출가

8) 출가 전 김일엽의 속명은 김원주, 홍일은 이숙동.

9) 두 인물의 생애 연대는 주석에서 언급한 다수의 논문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김일엽과 홍일의 출생과 교육과정은 다른 듯 유사점을 보인다. 차이점과 공통점을 상기한 기준에 따라 세 가지로 다시 구별할 수 있다.

차이점 첫째는 집안의 배경, 둘째는 종교적 배경, 셋째는 출가의 인연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셋째 출가의 인연은 다음 항목에서 논한다.

첫째, 집안 배경은 홍일의 집안은 부유했으나 일엽은 가난한 목사의 딸이었다. 홍일의 아버지 이소루(李筱樓)는 청말 관료로 지내다 후일 은행업으로 집안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로 인해 홍일은 부유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김일엽의 아버지 김원겸은 청빈한 목사로 가난을 면치 못하여 어머니가 생활을 이끌었다.

둘째, 종교적 배경은 홍일의 집안은 돈독한 불교 집안이었다. 반면 김일엽은 그 시대에는 드물던 기독교 목사의 딸로서 아버지 생전에는 기독교를 신앙한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통분모가 있다. 바로 가족 친인의 죽음과 교육 혜택으로 여기에는 일본 유학을 포함한다. 가족 친인의 죽음은 구체적으로 부모, 형제의 죽음이다. 두 사람 모두 아직 근대 국가의 성립 전인, 청말, 구한말에 출생했는데 어린 시절 부모의 죽음을 경험한다. 홍일은 5세 되던 해 부친이 사망하며 김일엽은 연이은 동생의 죽음과 모친의 사망을 겪게 된다. 이런 인생 경력이 두 사람에게 인생의 무상함을 맛보게 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김일엽이 쓴 ‘동생의 죽음’이란 신체시는 신채호의 시보다 앞선 시로 알려진다.

다음 교육의 수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선구자로 서게 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홍일과 김일엽은 교육을 중시하는 가풍에 힘입어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관료 집안이었던 홍일은 5세에 유교식 ‘계몽’인 조기 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계속해서 일반 사숙과 학교 등 여러 다른 환경에서 학습을 거듭하며 유교 전통의 훈습을 받으며 성장한다. 이 무렵 배우게 된 서예는 출가 이후에도 계속하였던 홍일의 주요한 문화 활동이기도 하다. 김일엽은 활달한 여장부인 모친의 뜻에 부합하여 신식 교육을 받게 된다. 당시로써는 최고의 지식층 여성이 되는 첩경인 이화학당을 졸업한다. 이어지는 행로에서 두 사람은 모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홍일은 비록 가세가 기울었다고는 하나 비교적 편안한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치며 유학 생활을 이어간다. 반면 김일엽의 일본 유학은 원만하게 이루어

어지지 않았으며 단기간에 끝나고 만다. 향후 창작 장르의 다양성과 문화적 영향력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이와 같은 차이점에 있음을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김일엽과 홍일은 교육과정에서 일본 유학이나 신학문과의 접촉을 통해 문화 활동을 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 예술적 성취도에는 격차가 보인다. 이러한 성취도의 간극을 개인적 역량으로만 돌리기에는 사회적 약자라는 지위가 매우 크게 적용되던 시대임을 간과할 수 없다. 즉 홍일이 가졌던 비교적 유복한 집안 환경에 남성이라는 조건이 개인의 역량을 어렵지 않게 발휘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반면 김일엽은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 분위기에 압도당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다.

홍일의 재능은 앞서 언급했듯 서예, 음악, 연극, 회화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본에 유학하기 전에도 홍일은 일찍이 연극에 관심을 보이며 관람을 즐겼다고 전해진다. 그러던 것이 일본 유학 시절에 발현하여 중국 최초의 서양극이라는 ‘차화녀(茶花女)¹⁰⁾를 각색 연출하였을 뿐 아니라 배우로 출연하여 연기도 하게 된다.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인 홍일은 널리 알려진 ‘송별(送別)¹¹⁾의 번안 외에도 여러 곡을 작곡하여 재가 시절 제자였던 풍자개(豐子愷)가 편찬한 중국 작곡집에 창작곡이 실린다. 회화의 재능은 유학 시절 유화 전공으로 방증되며, 서예는 출가 후에 대중 교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지속한다. 반면 김일엽은 여성, 이혼녀, 고아라는 사회 약자로서의 배경을 갖고 있었다. 재능만으로 자신의 역량을 펼치기에는 사회적 편견이 깊었던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엽의 활동은 주로 문학과 교육 분야에서 나타난다. 김일엽이 열정으로 펴낸 최초 여성잡지 『신여자』는 자신이 직접 편집인 겸 주간으로 활약한다. 그러나 이 잡지는 4호를 발행하는 것으로 마감하게 된다. 이후에도 김일엽은 교사로 재직하거나 강연을 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이어간다. 그러나 ‘신정조론’과 같은 급진적인 발언으로 말미암아 취지와 본질은 왜곡되고 더욱 큰 제약을 만들게 된다. 그런데도 김일엽은 그의 일생을 일관하는 강한 생명 의식으로 불교계 인사와의 만

10) 우리말 『춘희(春姬)』로 알려진 프랑스 작가 뒤마의 작품이다. 이숙동(홍일)이 여장을 하고 춘희 역할을 하였다.

11) John Pond Ordway (미국, 1824~1880)의 곡 ‘Dreaming of Home and Mother’을 번안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깊어가는 가을밤에 낯설은 타향에…”로 시작되는 ‘여수(旅愁)’라는 제목으로 한글 번안되었다.

남과 집필 활동으로 문화 예술적 역량을 이어간다.

다음은 두 인물의 불교 귀의 과정이다.

2. 자각과 역설의 불교 귀의

본 절은 김일엽과 홍일의 불교 귀의와 출가의 공통점에 집중하며 과정의 차이에 관해 고찰한다. 다양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논지의 전개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 소략하게 기술함을 밝혀둔다.

김일엽과 홍일은 적지 않은 나이에 출가한다. 단적으로 출가 연령을 살펴보면 김일엽은 38세,¹²⁾ 홍일은 39세로 늦깎이로 불릴만한 나이이다.¹³⁾ 관련하여 김일엽의 출가 연도에 관해 문도들은 1933년으로 잠정하고 있다. 김일엽을 측근에서 시봉(侍奉)하였던 수덕사 환희대 승려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소급할 수 있는 문헌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며, 지상을 통해 1933년 무렵에도 머리를 기른 재가자의 모습이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1928년에 보살계를 수계한 것은 증언을 통해 알려져 있고, 1931년에는 ‘조선불교여자청년회’ 임원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무렵 불교에 귀의했음을 알 수 있다.¹⁴⁾

홍일은 일본에 있을 때 단식의 이로움에 관해 접한 바가 있었고, 교수를 역임하던 38세 무렵 호포사(虎跑寺)에서 단식을 실행한다. 단식 수행으로 건강을 회복한 홍일은 바로 다음 해에 출가한다. 홍일의 출가 관련 기록에는 다소 즉흥적인 사실이 전한다. 홍일대사 자신의 회고에 따르면 친구이자 동료인 하면존(夏面尊) 거사가 대화 중에 “절에 들어와 승복까지 입었는데 출가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바로 머리를 깎아 버리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면존은 사찰에 거주하며 비승비속(非僧非俗)인 홍일이 맘에 들지 않아서 한 말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홍일은 자신도 삭발이 맞는 것 같아 그 말끝에 출가했다고 회상한다.¹⁵⁾ 때는 1918년이며 은사 료오(了惡) 문하였다. 불가에서는 선지식의 일언지하(一言之下)에 돈오(頓悟) 같은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충동적으로

12) 1928년 무렵 보살계를 수계한 계첩은 문도들에게 전하나 사미계와 같은 출가승의 계첩은 발견되지 않았다.

13) 앞의 표 참조.

14) 김광식, 「朝鮮佛敎女子靑年會의 창립과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7, 1997, p.110.

15) 홍일대사 저·전영숙 역, 위의 책, pp.27-29.

보이는 홍일의 출가도 기실 숙세(宿世)의 인연이라고 불교적 해석을 가할 수 있겠다. 아울러 홍일이 어린 시절 불교 집안의 훈습을 받으며 성장했다는 출신 배경도 원인의 하나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홀연히 출가한 홍일은 출가 이후에도 자유롭게 소요하며 한곳에 머물지 않고 운수납자(雲水衲子)로서 만행하며 수행한다. 가는 곳 어디서나 철저한 수행과 강연을 이어가며, 특히 만년의 10여 년은 포교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한편 김일엽은 선행 연구에서 고찰한바, 인연이 두루 교차하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 출가한다. 종단 기관지 월간 『불교』에서 문예 부문 담당(1927년)이기도 하였는데 이때는 백성욱과의 인연이 이어지던 시기다. 이후 만공(滿空) 선사를 만나게 되면서 마침내 출가 수행자의 길로 접어든다. 알려진 대로 금강산 마하연에서 주석하던 만공을 법사로 이성혜(李性慧)¹⁶⁾ 비구니를 은사로 출가한다.¹⁷⁾ 기독교인¹⁸⁾에서 불교 사문(沙門)이 되는 역설을 감행한 김일엽에게는 불교 선지식의 영향력이 유효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불교 이론가인 백성욱을 거쳐 실 수행자인 만공 선사를 만남으로써 “기독교인의 이단이며 허위라는 편견을 없앴고 전 우주를 구할 수 있다고 느끼며”¹⁹⁾ 입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일엽이 의지했던 선지식에 대한 이와 같은 신뢰는 향후 일종의 회향심(廻向心)이 되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고쳐 말하면 김일엽이 대중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의 효용을 기대하며 홍법(弘法)의 발원을 놓지 않았던 것은 선지식

16) 한 가지 첨언하면 홍일의 아명 또한 이 한자 발음이 같은 이성혜(李成蹊)라는 사실을 유의미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제시해 본다.

17) 경완(한운진) 외, 「일엽선사의 출가와 수행」, 한국비구니 전통 수행 포럼, 2006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 예문서원, 2007).; 김일엽 유고문집, 『미래세가 다하고 남도록』(1974, 인물연구소)에서 1928년을 출가 연도로 보았고, 이는 당시 문집을 편집한 문학평론가 문암 임중빈과 문도들이 유고와 문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다. 이는 김일엽의 유고 법문집 『일엽선문』(2000, 문화사랑)으로 이어져 별다른 수정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발견된 기사 자료와 사료를 토대로 김일엽문화재단과 문도들은 1933년 6월을 출가 연도로 확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18) 김일엽은 『어느 수도인의 회상』, pp.28-29에서 “소녀(少女)적에는 예수교 신자(信者)이었으나 퇴타심(退墮心)으로 천당지옥설(天堂地獄說)까지 부인(否認)하여 자유행동(自由行動)을 하며 문학(文學)에 뜻을 두고 지내다가...”라 하여 자신의 종교 편력을 드러낸다.

19) Jin Y. Park(박진영), *Women and Buddhist Philosophy: Engaging Zen Master Kim Iryöp*,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7, p.10.

으로서의 역할을 자임(自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김일엽과 홍일의 출가는 제반 인연의 성숙과 사상의 변화와 이에 따른 행동의 일치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불가에서 말하는 숙세의 인연이기도 하다.²⁰⁾

Ⅲ. 불교 문화인으로서의 발자취

1. 일생을 관통하는 수행과 득도(得道)

김일엽과 홍일은 출가 이후 철저한 수행으로 일관하여 일생을 마친다. 정진과 수행은 두 인물이 보이는 불교문화 영향력의 기반이자 일이관지(一以貫之)의 발원이기도 하다.

김일엽은 참선에 전념하기 위해 절필을 선언한다. 선원에 들어온 후 20년 동안, 스승 만공의 충고에 따라 문화계를 떠난다.²¹⁾ 충남의 견성암 선원에서 만공의 친자(親炙)를 받으며 투철한 정진을 이어간다.²²⁾ 머지않아 참선의 한 경지를 성취하여 삼매에 드는 등 경지를 경험한다. 자술하듯 만공의 법문에 답안을 내놓기도 한다.

만(滿) 3년쯤 지나서는 의심삼매(疑心三昧) (시공제재(時空制裁) 없는 무(無)의 시간(時間)을 제법 많이 가지게 되니 지해(知解)가 생겨 스님의 법문(法門)을 더러 해답(解答)하게 되니²³⁾

20) 김일엽의 출가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무상(無常)에 대한 철저한 인식, 그로 인한 명상과 대자유의 삶에 대한 탐색으로서의 결단이다. 둘째는 만공과의 인연이다. 이는 역사와 인생에서 선지식 한 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해주는 단면이다. 셋째는 다생겁래(多生劫來) 수행의 결과로 이는 어린 시절 운심덕과의 추억 등 범상치 않았던 수행자로서의 모습으로 방증된다.; 경완 외, 앞의 책, pp.233-234. 8살의 어린 나이였으나 마음 하나 돌이키는 것으로 아프지 않게 되었다는 부분으로, 운심덕과의 일화는 이 논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21) 박진영(Jin Y. Park), 위의 책, p.76.

22) 김일엽, 위의 책, p.33.: 이에 일엽은 이후 글을 보지도 쓸 생각도 없이 지나며 견성성불의 희망으로 10시 전에 눕지 않고 2시 안으로 일어나 정진한다.

23) 김일엽, 위의 책, p.34.

이 장면은 선가에서 공부를 시험하는 법거량(法擧量)과 같다. 만공이 김일엽에게 친필로 내려준 당호(堂號)와 도호(道號)는 종종 인가의 증거로 인용된다.²⁴⁾

참선과 같은 불가의 수행은 실천행이 필수적이라고 볼 때 김일엽의 수행은 가히 모범적이다. 만공의 친자를 통해 공부의 힘을 얻은 김일엽은 출가 후 오래지 않아 대중을 이끄는 입승(立繩)을 지내기 시작하여 오래도록 지속한다. 선가의 소임이 대체로 번갈아 맡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출가하고 얼마 되지 않아 소임이 무엇인지 무지할 때에는 김일엽의 범명이 ‘입승’인 줄 알았다고 전한다. 또한, 오랜 시간 늙지 않고 정진한 것도 조심스럽게 증언한다. 김일엽 스스로가 지병인 해소천식이 원인이 돼서 누울 수 없었다고 겸손하게 언급했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정진으로 얻은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²⁵⁾ 장좌불와라고 부각하여 표면화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실행하고 있었던 셈이다. 아울러 기침이 대중 수행에 민폐가 될 것을 배려하여 한밤에도 앉아서 정진하였다는 것이 이미 자비심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엽은 1947년 오도시를 쓴다. 열반 전 만공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받았고 만공의 입적 후에 다시 고쳐 쓴 것이다.

내가 나를 버려두고 남만 찾아 해맸노라.
사람과 그 말소리 서로 못 봄 같아서
벌 모습 없사옵건만 기거자재(起擧自在)하여라²⁶⁾

이 오도시는 스승으로부터 점검을 마치는 못하였으나 화두를 놓지 않고 정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끌어주는 스승이 없더라도 자신이 이룩한 공부의 힘

24) 김일엽, 『일엽선문』, 문화사랑, 2001, p.270. 갑술년 초1일(1934년 3월 2일)에 받은 글이다. ‘하엽당(荷葉堂) 백련(白蓮) 도엽(道葉) 비구니(比丘尼)’(‘일엽이 연꽃처럼 되었고, 성품도 백련과 같으니, 도를 이루는 비구니가 되었도다’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

25) 김일엽의 육성은 김일엽문화재단 소유 녹음테이프에 남아 있다. 입승 소임에 관한 증언은 2015년 제작된 [대전 MBC 다큐스페셜, ‘시대의 벽을 넘어서’] 가운데 ‘김일엽 편’에서 손주 상좌인 월송, 정진의 인터뷰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DVD 자료 참조. 아울러 이 다큐멘터리 자료는 현재 유튜브로 확인 가능. 인터넷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eYm8cXOE8-8>

26) 김일엽,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삼기에』, 문화사랑, 1997, p.108. 송정란, 경완 등의 논문에서 언급한 바 있다.

으로 나와 남, 사람과 소리라는 대립을 떠나 자유로운 경지임을 선언한다.

이처럼 김일엽은 만공의 가르침을 자신의 목소리로 재해석한다. 김일엽은 참선에 대해서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한다. “몰아적 신심(信心)을 넘어 단일경(單一境)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내 몸은 법당 곧 선실(禪室)이요, 내 정신은 공부인(工夫人)이라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에 늘 정진을 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다.²⁷⁾ 오도시를 쓰고 김일엽은 “겨우 자성(자아일도(自我-道))을 짐작한 글귀”라 겸허하게 말했으나 기실은 치열한 정진으로 자성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²⁸⁾ 만공의 열반 이후에야 김일엽은 문필활동을 재개하는데 그 의의는 다음 절에서 재론한다.

홍일은 출가 후 율종(律宗) 방면의 수행에 전념한다. 홍일은 처음 출가하여 『범망합주(梵網合注)』를 읽고, 이어서 『영봉종론(靈峰宗論)』을 보고 율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원을 세운다. 계를 받은 이후에는 수시로 『전계정범(傳戒正范)』과 『비니사의집요(毗尼事義集要)』를 읽는다. 그해 겨울에는 『비니진경록(毗尼珍敬錄)』, 『비니관요(毘尼關要)』 등 여러 계율 관련 불전을 탐독한다.²⁹⁾

홍일은 수행의 기본이 지계에 있음을 자각하고 작은 습관까지 조심하며 수행한다. 엄숙한 규율을 답습하는 계율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는 바탕이 되는 윤리를 강조한다. 고답적인 출가자만의 계율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본 도덕 관념으로서 계율을 풀이한다.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에게 ‘습관 고치기’라고 권하며 실증적으로 도반들과 함께 고친 9가지를 들어 설법한다. 9가지는 음식 먹을 때, 의복, 예불, 한담, 신문, 노동, 앉는 자세 등으로 요약된다. “음식 먹을 때는 소리 내지 않고, 때아닌 때에 먹지 않으며 남기지 않고 먹는다. 옷은 소박하고 단정한 승복을 입으며 예송(禮誦)은 각자 『법화경』, 『금강경』, 염불 만

27) 경완(한운진), 「일엽(一葉)선사의 만공사상 재해석과 독립운동」, 『대각사상』 29, 2018, p.228.; 송만공, 『만공어록』, p.207, 만공, “몰아적(沒我的) 믿음의 발판을 딛고 부처를 넘어 각자의 자기 정체(正體)를 찾아야 하나니라.”에 대한 김일엽의 재해석으로 원 출전은 김일엽, 『미래세가 다하고 남도록』 하, p.102.

28) 송정란, 「김일엽의 선(禪)사상과 불교 선시(禪詩) 고찰」, 『韓國思想과 文化』 85, 2016, p.456.

29) 徐承, 「李叔同出家思想探微」, 『杭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9,(4). p.106에서 재인용. 원본은 弘一大師全集編輯委員會, 『弘一大師全集』 第一冊, 福建人民出版社, 1992, p.192.; 弘一大師全集編輯委員會, 『弘一大師全集』 第七冊, 福建人民出版社, 1992, p.419.

번 등을 개인이 실행한다. 사경과 사증 수업에 전념한다. 한담과 신문은 금지하며, 노동하며, 자세를 반듯이 앉는다.” 등등과 같은 것이다.³⁰⁾ 일견 소쇄해 보이는 조목들이 고구정녕(苦口丁寧)하다. 이는 습관이란 전생과 이생에서 훈습(薰習)해온 일종의 유전자로 이것을 잘 고치는 것이 수행의 기본이라는 설법이다.

습관이란 무엇인가? 여러 생을 거치면서 쌓아온 훈습과 이번 생애에 어린 시절부터 받은 환경의 훈습이 몸과 입에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습관이다.³¹⁾

초보자도, 수행 단계가 높은 구참(久參)이더라도 남아 있는 훈습·습기는 무심 중에 발현하여 미세하고 끈질기게 성불 수행을 방해하는 말썽 요소가 된다. 크게 깨달은 후에도 습기(習氣)로 인해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불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따라서 기초이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습기 교정을 강조한다. 습기란 성불의 가장 정미(精微)로운 부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홍일은 율종 대사로 알려져 있으나 만년의 일상에서는 염불 수행을 권한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종소리에 의지하여 염불할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처음에 ‘뚝’ 할 때에 ‘나무’를 ‘딱’ 할 때에 ‘아미’를 염한다. 두 번째 ‘뚝’ 할 때에는 ‘타’를, ‘딱’ 할 때에는 ‘불’을 염한다.³²⁾

홍일의 이른바 괘종시계가 내는 똑딱 소리를 도구로 하는 염불 방법은 섭심(攝心)과 염불의 묘법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만년의 홍일은 더욱 전법(傳法)에 노력을 기울이며 한곳에 머물지 않고 만행한다.³³⁾ 홍일은 하문(廈門), 장주(漳州), 안해(安海), 천주(泉州) 등지에서 『약사경』, 『아미타경』, 『지장본원경』, 『심경』을 강경한다. 또 교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승가 교육 시설 남산불학원(南山佛學苑)을 천주 개인사의 존승원(尊勝院) 안에 개원한다.³⁴⁾

30) 홍일대사 저·전영숙 역, 위의 책, p.69.

31) 홍일대사 저, 전영숙 역, 위의 책, p.65.

32) 홍일대사 저, 전영숙 역, 위의 책, p.16.

33) 김일엽이 견성암이라는 한 장소에서 수행에 전념한 것과 대비된다.

34) 홍일대사 저, 전영숙 역, 위의 책, pp.15-16.

2. 불교문화에 관한 공헌과 그 영향

김일엽과 홍일이 살았던 19세기 말은 격변의 시대로 한국과 중국은 열강의 침탈을 동반한 문명의 교차를 경험한다. 홍일과 김일엽은 약 16년의 연령차가 존재하나 같은 시대를 산 인물로 볼 수 있다. 주지하듯 김일엽과 홍일은 출가 전 이미 명성이 자자한 문화계 인물이었다고 이들이 불교계로 입문한 사실은 가히 센 세이션을 일으킨다. 영향력 있는 두 인물의 출가는 사회 전반에 불교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식자층과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들의 불교문화적 영향력은 무엇보다도 출가 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예술적 성취를 이루었다는 사실과 관계된다. 김일엽은 저술로, 홍일은 작곡, 서예, 저술 등으로 각각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김일엽의 대표작은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두 번째로 낸 책 『청춘을 불사르고』(1962년)이다. 이보다 앞서 김일엽은 출가 후 첫 번째 저서인 『어느 수도인의 회상』(1960년)을 펴낸다. 어렵게 출판한 이 책이 세간에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고도 한다.³⁵⁾ 그러나 이 책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곧이어서 일부를 수정하고 제목을 바꾼 『청춘을 불사르고』가 출판된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자 실로 문단의 반응은 뜨거웠다. 김일엽의 수상록은 지금까지도 여러 종교인에 의해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한국적 종교 글쓰기의 계보와 그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³⁶⁾ 중언하면 여러 종교인이 힐링을 표방하는 종교적 글쓰기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적 글쓰기는 자칫 경전을 인용하거나 해석하고 거기에 감상을 적당히 혼합한 신변잡기가 되기 쉬운데 김일엽은 자신만의 필치로 불교를 해석하고 설명한다. 이는 김일엽이 뛰어난 예술가를 깨달은 이 즉 각자(覺者)로 여겼으며 명작은 대오(大悟)를 이루어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5) 수덕사 환희대 월송의 증언이다. 김일엽 생전에 출판은 사실상 손주 상좌 월송이 전담하였다. 월송은 원고지도 귀한 시절이라 김일엽의 원고가 편지 봉투와 편지 지 이면을 활용하여 쓴 원고가 많았다고 증언한다. 거기에 더해 사상의 깊이와 용어의 어려움은 차치하고, 문장을 쓸 때 여러 번 고쳐 쓰기를 거듭하였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옮기기도 쉽지 않았다고 겸손한 회고를 전한다.

36) 김우영 엮음, 『김일엽선집』, 현대문학, 2012, p.499.

큰 예술가들은 모두 스님이 말씀하시는 대오를 이루신 분인 듯, 위대한 예술이란 것은 철저히 깨달은 인생관 위에서 되는 것인 줄 압니다. … (중략) … 저도 참으로 위대한 예술가 되어지이다 하고 원(願)한다면 먼저 인생과 우주를 다 알고 난 뒤에 붓을 잡을 바인 줄 압니다.³⁷⁾

『개벽』지와 인터뷰하며 기자가 수행이 무르익으면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글을 쓸 의도가 있는지 어떤지 물었을 때, 김일엽은 대답한다. “예,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되면 …”³⁸⁾ 즉 김일엽은 영원히 절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글쓰기를 발원하며 잠시 멈춘 것임을 알 수 있다. 김일엽이 자신의 글쓰기에서 독특하게 사용하는 단어로 완인(完人), 문화인(文化人) 등이 있다. 이 용어에 함축된 의미는 불교의 ‘각자 = 깨달은 사람’에 다름이 아니다. 완인, 문화인, 각자의 삶이야말로 창조적이며 본자연, 생명이라고도 표현한다.³⁹⁾ 본자연 혹은 생명이라는 단어는 완숙해진 김일엽의 사상을 표현하는 단어로 향후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만년이 되었어도 김일엽의 건필은 여전했다. 김일엽문화재단 제공 육성 테이프에 남겨진 김일엽의 글쓰기에 관한 염원을 공개한다.

기자: 요즘도 글 쓰십니까?

김일엽: 요새도 쓸 능력이 있으면… 이제 조금 건강 회복하고 쓰고 싶어요. 그런데 삼권을 삼 책을, 일 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둘(두 권) 『청춘을 불사르고』,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 이 둘은 불법을 짐작할 때 쓴 것이라 그게 다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이론을, 확실한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하게 쓸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부를 위해서는 하나 마나 무상해 할 것이라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생전에 써 볼 듯해요… 모르겠어요.

김일엽의 육성에는 건필의 열망이 드러난다. 또한, 김일엽이 작품집을 삼부작

37) 김일엽, 앞의 책(『미래세가 다하고 남도록』 상, 인물연구소, 1974), pp.476-477.

38) Jin Y. Park, 앞의 책, p.175, “Her interview with the journal Opening of the World (Kyebyok) offers us another occasion to see lryop’s attitude about writing. Asked whether she was still doing her writing at the monastery, lryop responded that she should not try to write when she was not fully ready for it. The reporter further asked whether she intended to open up a new horizon in her writing when her practice became mature, and lryop replied, “Yes, like Sakyamuni Buddha …”

39) 경완, 위의 논문, p.223.

으로 기획했음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청춘을 불사르고』와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1964) 두 권을 언급하고 있다. 『어느 수도인의 회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청춘을 불사르고』가 『어느 수도인의 회상』을 대중 감성에 감각적으로 맞추어 보완한 작품이기 때문이다.⁴⁰⁾ 김일엽이 두 작품집을 돌이켜보니 그때는 불교에 관해 짐작만 했을 뿐이고 지금은 좀 알게 되었으니 명확하게 불법에 관해 쓰고 싶다고 피력한다. 아울러 이어지는 육성에서는 공부(수행)로 보자면 무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여, 선가의 가풍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자신에게는 별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

육성은 바깥 면에 1967년 10월 24일 녹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복잡한 녹음에서 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대담을 들을 수 있다. 내용 가운데 포교극 ‘이차돈의 사’를 언급하는데 이 연극이 1967년에 상연되었으므로 녹음테이프 겉면에 기록한 연도와 일치한다. 「이차돈의 사」는 김일엽이 남긴 유일한 희곡 작품이다.⁴¹⁾ 이광수 원작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1967년 박진(朴珍)에 의해 연출 상연되었다. 김일엽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실제 기획, 각색은 손주 상좌인 월송이 주도하였으며 주연 이차돈 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고 전한다. 김일엽은 곧이어서 연극이 포교를 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짚어주고 있다. 이는 문화가 포교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 김일엽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홍일도 출가 전에 직접 연극을 기획 출연한 바 있다. 홍일은 춘희로 여장을 했으나, 월송은 출가 후 비구니로서 남자 주인공 이차돈 역할을 한 것은 대비되는 지점이다.

홍일은 김일엽과는 대조적으로 한곳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이곳저곳을 행각(行脚) 수행하였다. 율종 관련으로, 무엇보다 남산 율종의 11대 조사답게 남산 율학 연구의 기초를 마련한다. 당 도선(道宣) 작 “남산삼대부(南山三大部)(『행사초(行事鈔)』, 『계본소(戒本疏)』, 『갈마소(羯磨疏)』)”의 교주, 송 원희율사(元熙律師)가 도선의 삼대부(三大部)를 풀이한 삼기(三記)(『자시기(資詩記)』, 『행종기(行宗記)』, 『제연기(濟緣記)』)의 교주를 완성한다. 이 저작물은 남산 율학 연구자의 훌륭한 교본으로 평가되며 이보다 앞서 1924년에 『사분율비구계상표기(四分律比丘戒相表記)』라는 역작을 출판한 바 있다. 1935년에는 하문의 승천사(勝天寺)에서 율학

40) 두 책에서 일곱 편은 같은 내용을 일부 수정했을 뿐 재편집한 것이며, 그 외에 다섯, 여섯 편 정도가 새로운 내용이다.

41) 김홍우 엮음, 『현대불교회곡선』, 민족사, 1990, pp.418-419. 4막 15장으로 구성.

에 관한 강연을 통해 율종의 역사와 중요성을 설법한다. 42) 승천사는 홍일의 다비(荼毘)가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홍일은 출가 후에도 시사, 음악, 서예 등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결과물을 창출한다. 직접 출간하지 않았음에도, 1928년에 제자 풍자개(豐子愷)가 다른 저자들과 함께 편찬한 『중등교과적용가곡집·중문명가50곡(中等教科適用歌曲集·中文名歌五十曲)』에 그의 작품 12수가 수록된다.43) 불교 관련 음악은 아니나 세인의 주목을 받기에는 충분하다. 음악과 관련한 불교 문화적 공헌은 무엇보다 삼보가(三寶歌)를 들 수 있다. 삼보가는 중국 인간불교의 제창자 태허대사(太虛大師)와 합작한 작품으로 홍일이 선곡(選曲)하고 태허대사가 작사한 곡이다.44) 작사와 작곡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발표연도에 관해 두 가지 설이 있다. 1929년 태허대사가 작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작곡되었다는 설과 1930년에 홍일이 작곡을 먼저하고 나중에 작사했다는 설이다.45) 이 곡은 지금까지 중국의 각종 불교 행사에서 제창된다. 이 외에 홍일의 서예는 특색있는 글자체로 미술계의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독특함은 홍일의 자술에 따르면 기존의 서법을 따르지 않고 서양화 도안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전체 조화를 근본으로 하는 미술관을 견지한 것이다.46)

이상 불교계 인물로서 김일엽과 홍일의 문화 활동을 살펴보았다. 김일엽은 수상록을 통한 문필활동으로 홍일은 저술, 음악, 서예 등 다방면에서 불교문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검토하였다. 이들의 문화적 영향력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김일엽의 영향력은 불교, 문학, 사회학, 여성학 등 제반 학계에서 연구가

42) 홍일대사 저, 전영숙 역, 위의 책, pp.15-17, pp.162-169.

43) 孫繼南, 「李叔同-弘一大師音樂行止暨研究史料編年(1884~2010)」, 『天津音樂學院學報』, 2011, p.4. 자료에 따라 1927년으로 기록한 것이 陳慧劍, 『弘一大師傳』, (臺北: 侂麗書屋, 1965), p.492이 있고, 陳星, 「李叔同藝術教育事業年表」, 『美育學刊』, 2019, p.17 등이 있다. 그러나 孫繼南의 이 논문에서 초간본 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이 연도를 선택했다. 이후 풍자개는 1935년에 『개명음악교본(開明音樂敎本)』 7책을 편찬하면서도 홍일의 곡을 수록한다.

44) 陳星, 「李叔同藝術教育事業年表」, 『美育學刊』, 2019, p.17. 陳星은 1929년 설을 따른다.

45) 孫繼南, 위의 논문, p.5.

46) 이수성 저·안영길 역, 「중국 근대미술의 선구자 李叔同」, 『美術史論壇』 6, 1998, pp.291-292.

이어지는 것으로 방증할 수 있다.⁴⁷⁾ 세간의 관심도 이어져서 관련한 칼럼을 온 오프의 지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일엽 일생을 출가 후 수행 업적을 중심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선각자로 앞서간 삶을 재평가 한다. 선각자로 김일엽은 당시에는 상당히 지탄을 받았으나 지금은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여성 선구자로 재평가되고 있다. 출가 이후 비구니로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문필활동을 한 것도 선구자적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다. 김일엽은 인용과 모방이 아닌 자신의 필치로 불교 사상을 알린 바 있다. 문학 연구 방면으로 김일엽의 수상록은 현재는 활성화된 종교적 글쓰기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박진영이 쓴 김일엽 영문 평전 『*Women and Buddhist Philosophy: Engaging Zen Master Kim Iryōp*(여성과 불교철학: 김일엽 선사를 통하여)』은 구미의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다.⁴⁸⁾ 이를 통해 흥미로운 일생과 관심거리에서 사상을 직접 연구하고 비교하는 학자들이 생기고 있다.

김일엽 사상의 핵심을 돌아보면 수행을 통해 성불하여 완인, 문화인이 될 것을 강조한다. 만년의 김일엽은 이를 본자연, 생명이라는 용어를 채용, 도와 지혜로 대치하여 설명한다. 즉 본자연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이며, 마음을 잘 쓰게 하는 지혜, 그것이 생명이라고 한다.⁴⁹⁾ 당시에는 특이했을 단어 사용이 현재는 어색하지 않은 용어로 인식된다. 나아가 선구적 세련됨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는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나 기독교와 불교라는 종교 사상의 편력으로 인해 독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거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현재 다종교 문화에서 더욱더 호소력을 발휘하게 될것이라 예측할 수도 있다.

47) 한운진(경완), 「1930년대 김일엽(金一葉) 소설의 현실과 치유」, 『춘원연구학보』, 14, 2019, p.107 참조.(1978년 성낙희의 논문, 경영자, 김영란, 김현자 등의 연구. 노영희, 노미림의 일본 문학과 비교 연구. 유진월의 『신여자』 해석과 전편 간행. 기독교 방면 연구 4편, 여성학, 사회학 관련 논문 다수. 성낙희의 연구보다 앞서 1971년 박효순의 「김일엽의 문학실적론」이 『지현여성생활갑기념논문집』에서 발견. 불교 관련 연구는 방민호를 시작으로, 양정연, 김광식, 김종진, 박산향, 한운진, 김무수. 이외 일반 논문으로 송명희 등 다수의 연구 성과물 참조.)

48) Jin Y. Park(박진영), *Women and Buddhist Philosophy: Engaging Zen Master Kim Iryōp*,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7, 김일엽에 대한 최초의 전면적 저술이며 곧 한국어 번역 출판을 앞두고 있다. 다큐멘터리의 인터뷰.

49) 경완(한운진), 「일엽선사의 만공사상 재해석과 독립운동」, 대각사상 29, 2018, pp.220-221.

홍일의 영향력은 그가 발휘한 재능에 비례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홍일이 1942년 열반에 든 이후 1957년에는 15주년을 기리는 각종 문장이 상해에서 발표된다. 탄신 100주년을 맞이한 1980년에는 전람회를 개최한다. 이후 거의 매해 관련 저작물이 출판되며, 매체도 다양해서 서적 외에 음반 CD도 제작된다.⁵⁰⁾ 이러한 관심은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정치 상황을 초월하여 중국 대륙 외에 대만에서도 기념사업이 이어진다. 음악회가 개최되며 여러 매체에서 일생을 다룬 영화와 드라마가 꾸준히 제작된다. 2005년에 홍일의 일생이 ‘일륜명월(一輪明月)’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었으며, 이보다 앞선 1995년에는 ‘홍일대사’라는 20부짜리 드라마가 방영된 바 있다. 2010년에는 다큐멘터리와 음악극이 만들어지고 2011년에는 연극이 제작된다. 유형의 기념관도 지어진다. 친진(天津)에 이숙동기념관(李叔同紀念館)이, 절강(浙江)에는 이숙동 생가 기념관(李叔同故居紀念館)이 세워졌다. 홍일의 사상은 명확성으로 대표되며⁵¹⁾ 무엇보다 고답적으로 여겨지는 율학을 대중을 위해 쉽게 설명하는데 가치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상 김일엽과 홍일의 문화적 영향력을 정리하면, 김일엽은 주로 문학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자신의 저술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현재 각 분야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세간의 가십거리가 아닌 비구니 수행자이자 불교 사상가로서의 위상을 찾아가는 중이다. 홍일은 광범한 연구와 기념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일국양제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례한 명성이 양쪽 모두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동시대를 살아간 두 인물은 뛰어난 재능과 열정으로 문화인으로서 업적을 남겼다. 그 영향은 현재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으며, 출가 후 행보는 방향은 달랐으나 불교를 알리려는 발원은 같았다. 김일엽의 저술은 은유한 설법이며 연애 이야기로 꾸며 사상을 설명한 불교 사상의 스토리텔링이었기 때문이다. 그 영향은 출가자와 재가자 가운데 김일엽의 문장을 읽고 귀의했다는 증언을 통해서도 방증 된다.⁵²⁾ 홍일의 경우 계율을 예로 들면, 그는 남산 율종의 대사이지만 재가자 출가자를 위해 쉬운 용어로 계율을 설명하고 실천할 것을 가르쳤다. 그가 지닌 문화적 소양으로 중국불교의 대표 종파인 율종과 지계(持戒) 중심의 수행을

50) 孫繼南, 위의 논문, pp.6-12.

51) 蔣俊杰, 「論弘一大師佛學的通透性」, 『濮陽職業技術學院學報』, 2011, p.38.

52) 경완(한운진), 위의 논문, pp. 223-224.

재정립하고 친근하게 만들었다. 그가 이룩한 다양한 창작물은 출가 전후를 막론하고 홍일의 불교적 정체성과 함께 전파되어 불교의 사회적 지위를 고양하는 역할을 한다.

IV. 맺음말

본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의 비구니 김일엽과 중국의 비구 홍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논문은 두 인물이 격변의 근대를 살았던 불교 수행자이자 문화인이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두 승려의 생애 과정과 업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대적으로는 삶의 일대 전환기인 출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김일엽과 홍일은 각자 자국에서 문화인으로서 중요성을 지님에도 비교한 논문은 전혀 없어 본 논문이 최초라는 가치를 지닌다.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차이점에 주목한 것으로 불교 입문 및 출가 무렵의 사회적 배경과 반향의 다름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출가 이후 수행과 문화 영향력 부분으로, 김일엽과 홍일의 투철한 수행과 대중을 교화하는 수단으로 문화를 제창하였다는 공통점에 관해 논술했다.

출가 전 차이점의 원인으로 성장 배경, 교육, 젠더의 차이를 들었으며 시대적 상황과 문화의 관계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출가 이후의 공통점은 불교 진리에 귀의한 것에서 비롯함을 논증하였다. 크게 두 부분으로 수행과 포교로 정리할 수 있었다. 김일엽과 홍일은 출가 이후 참선과 계율이라는 수지 방식을 고수하며 철저하게 수행하였다. 동시에 대중 교화를 펼치는데 이는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 자각각타(自覺覺他)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엽과 홍일의 대중 교화는 문화를 도구로 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글쓰기, 쉬운 계율 해석 및 다양한 문예활동을 통해 문화를 통한 전법을 펼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도 유효한 영향력의 원인이자 향후 불교문화의 나아갈 바를 시사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본 논문을 통해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金一葉, 『어느 수도인의 회상』, 수덕사 건성암, 1960.
- _____, 『청춘을 불사르고』, 문선각, 1962.
- _____,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 휘문출판사, 1964.
- _____, 『미래세가 다하고 남도록』 上·下, 인물연구소, 1974.
- _____, 「나의 入山記 : 金一葉 未發表遺稿」, 『隨筆文學』 33, 1975.
- _____,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삽기에』, 문화사랑, 1997.
- _____, 『一葉禪文』, 문화사랑, 2001.
- _____, 『청춘을 불사르고』, 김영사, 2002.
- _____, 김우영 역음, 『김일엽선집』, 현대문학, 2012.
- 경완(한운진) 외, 「一葉禪師의 出家와 修行」,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 예문서원, 2007.
- _____, 민족작가회의 비평분과위원회 지, 「일엽선사의 선(禪)」, 『한국 현대 작가와 불교』, 예음, 2007.
- _____, 「일엽(一葉)선사의 만공 사상 재해석과 독립운동」, 『대각사상』 29, 2018.
- _____, 「1930년대 김일엽(金一葉) 소설의 현실과 치유」, 『춘원연구학보』 14, 2019.
- 김광식, 「김일엽 불교의 재인식」, 『불교학보』 72,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5.
- 徐 承, 「李叔同出家思想探微」, 『杭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9.
- 송정란, 「김일엽의 불교시 고찰을 위한 서설」, 『韓國思想과 文化』 75, 2014.
- _____, 「김일엽의 선(禪)사상과 불교 선시(禪詩) 고찰」, 『韓國思想과 文化』 85, 2016.
- 孫繼南, 「李叔同-弘一大師音樂行止暨研究史料編年(1884~2010)」, 『天津音樂學院學報』, 2011.
- 李樹聲 著·安永吉 譯, 「중국 근대미술의 선구자 李叔同」, 『美術史論壇』 6, 1998.
- 월송·임중빈, 「金一葉의 人間과 文學」 對談, 『문학사상』 27, 1974.
- 蔣俊杰, 「論弘一大師佛學的通透性」, 『瀋陽職業技術學院學報』, 2011.
- 陳 星, 「李叔同藝術教育事業年表」, 『美育學刊』, 2019.
- 陳慧劍, 『弘一大師傳』, 伉儷書屋, 1965.
- 弘一大師 講, 『弘一大師演講全集』, 天華瓔珞叢刊(24), 天宏印刷事業有限公司, 1980.
- 홍일대사 著·전영숙 譯, 『그저 인간이 되고 싶었다』, 불광출판사, 2014.
- 하춘생, 『개달음의 꽃-한국불교를 빛낸 근세 비구니』, 여래, 1998.
-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여성문학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 2008.
- 홍일대사 著·전영숙 譯, 『그저 인간이 되고 싶었다』, 불광출판사, 2014.
- Park, Jin Y., 『Women and Buddhist Philosophy: Engaging Zen Master Kim Iryōp』,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7.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Kim Iryöp and Hong-il
in the Influence of Buddhist Culture

Han, Oon-jin(Gyung-wan)

(Educational Assari(阿闍梨), Lecturer of Korea Univ. and Hannam Univ.)

This paper compares Korean bhikkhuni Kim Iryöp and Chinese bhikgu Hong-il in relation to Buddhist culture. Kim Iryeop and Hong-il stood out in the field of art and culture before embracing Buddhism, and end their lives with practicing asceticism thoroughly. I write about the cultural influence that connects gender, country, and era, through a study of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This paper is the first one to compare the Kim Iryöp and Hong-il.

The method of study follows a comparison method concerning background, achievements and thought, and influence. I consider background and Buddhist recognition process firstly, and Buddhist asceticism and cultural influence secondly.

We distinguish the difference about background and Buddhist recognition process by gender and regional differences. The process of embracing Buddhism is different paradoxical perception through Zen knowledge and natural one. The commonality of Kim Iryöp and Hong-il is the recognition of Buddhism. This is consistent with the awareness of the transience and embracing Buddhism.

Buddhist asceticism is represented by Zen meditation(參禪) and religious precepts(戒律) and is same in thoroughness despite difference of characteristics of Buddhism in each country. There are big and small differences in cultural influence. However, it is the same to propagate the Buddhist missionary work and to enhance its status using their strong influen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siders the role of Buddhist culture through the modern Buddhist culture of Kim Iryöp and Hong-il. The cultural influence of the two monks is valid in the present and will continue in the future.

Key words

Kim Iryöp, Hongil, Culture, cultural people, Zen meditation(參禪), the Thought of Seon(禪), religious precepts(戒律), Storytelling, Consciousness of Life.